

이흥기 퇴출과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서명 요청

[서명 청원의 취지] 보험금 16 만여 달러를 수령해 이를 은폐하고 거짓으로 회계보고를 한 이흥기 제 35 대 애틀랜타 한인회장이 제 36 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한인회 공금 5 만 달러를 빼내 돈세탁을 거쳐 공탁금으로 제출하는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흥기 씨의 36 대 한인회장 당선은 **원천무효**입니다.

이씨는 경찰이 자신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일간지에 의혹을 제기했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비방광고를 일삼았고, 동포들에게 사죄하고 퇴진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한인회장이란 직함을 도용하고 한인회관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하게 한인회 총회를 개최해 이흥기와 그 주변 인사들을 퇴출시키고 한인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서명 청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명 청원의 내용]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한인회칙에 근거해 조속한 한인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인회 회칙 제 11 조 2 항은 “정회원 100 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 때 정회원은 회비납부와 상관없이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한인 혈통을 말합니다.

이흥기 씨는 회계보고서 조작,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자행하고도 일부 세력을 등에 업고 “당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뻔뻔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포들의 염원과 동의를 받아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 철거해 한인회관 2 층 캄캄한 곳에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인회는 정상화 돼 애틀랜타 한인동포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한국인의 권익신장과 위상을 높이고자 일해야 합니다. 15 만 동포를 대표하는 한인회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투명하고 공정한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직 한인회장 및 대다수 한인단체장들로 구성된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하루 속히 총회를 소집해 망가진 한인회를 수습해 바로 세우고 새 지도부를 선출해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한인회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이 길의 첫 걸음마가 바로 한인총회 소집 서명 동의입니다. 부디 많은 동포들이 동참해 한인들의 정의감과 기개가 살았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 서명은 18 세 이상의 한국인 또는 양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혈통인 사람에 한 합니다.

2024 . 7.28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백규 외 위원 배상

서명 날짜:

영문이름	
이메일 주소	
거주지 카운티 또는 도시(영어 or 한글)	
본인은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서명, 영문 이름, '동의함', 'Yes' 중 택일)	